

남해관광문화재단X여행에미치다, "워케이션 최적지 남해" 홍보투어 실시

윤 김지혜 기자 | 승인 2023.10.21 18:10

[투어코리아=조성란 기자] 남해관광문화재단이 국내 여행커뮤니티 '여행에미치다'와 함께 크리에이터 초청 '남해로 출근' 워케이션 홍보투어를 진행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에 따르면, 워케이션이 가능한 직종에 종사하는 크리에이터 8명이 지난 4~7일 3박 4일간 남해에서 워케이션을 경험했다.



남해청년센터 멀티라운지 / 사진-남해군

이번 투어에 참가한 크리에이터는 1인 출판사 대표, 스타트업 재무담당자, IT 기획자 등으로, 이들은 남해각 공유오피스, 미국마을 공유오피스, 남해청년센터 바라 멀티라운지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또 업무 종료 후에는 남해 주요 관광지와 제 11회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탐방하며 일과 여행을 동시에 즐겼다.

워케이션 홍보투어에 참여한 IT 기획자 김 모씨는 “회사에서 ‘근무지 자율 선택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때마침 남해관광문화재단과 여행에미치다 에서 기획한 워케이션 홍보투어를 접하고 신청하게 되었다”며 “일과 휴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채널에 지난 16일에 업로드 된 ‘남해로출근’ 워케이션 홍보 콘텐츠는 19일 기준 27만 7,844회 노출을 기록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워케이션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워케이션 최적지 남해군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나아가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워케이션 홍보투어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산과 바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남해에서 일과 휴식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과 스트리밍하우스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서는 (주)스트리밍하우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어코리아 - No.1 여행·축제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혜 기자